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동영



새 정부의 일하는 스타일이 확 달라졌다. 청와대에 대한 부처의 업무보고는 공무원의 통상적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훨씬 빠른 7시30분 시작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청사 등 현장을 찾아 보고받는 형식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의 형식과 내용도 바뀌었다.

사회에 일반화된 무사안일을 매섭게 질타했다. 국민, 특히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섬기는 정부'를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출발은 기대만큼 산뜻하지 못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은 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스스로 초래한 면이 많다. 무엇보다 인사의 실패다. 새 정부는 잇단 인사에서 '고소영' '강부자' 등의 비야양에서 드러나듯 '승자 독식'의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 5대 사정기관에 이어 검찰 핵심요직까지 '끼리끼리 문화'에 빠진 것이다.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은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까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정도다. 영어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5년은 정치실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초 평검사들과의 공개토론회는 탈 권위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과격적이었다. 당·청을 분리해 측근정치·보스정치의 극복에 나섰고 지역구도 타파, 관권 및 금품선거 근절에도 노력했다.

독선·아집 집고 새 출발을

최종 평가는 훗날 내려지겠지만 현 단계에서 참여정부의 정치실험은 '실패작'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 많은 국민들이 결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목적이 옳았을 지 모르지만 수단과 방법이 성급했고 정교하지 못한 탓이다. 노 대통령의 잦은 말 실수와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도 부정적 평가에 한 몫 했을 것이다.

국민은 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성과에 급급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비춰져선 곤란하다. 독선과 아집, '끼리끼리 문화'를 접고 '상위 1%'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머슴'으로 변신할 때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논설실장) dykim@kwangju.co.kr

국민 걱정 키우는 '실용정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8.4%에 불과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56.8%에 그쳤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의 지지율이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초기 지지율이 70~8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으로서의 여윌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정권 출범 초기의 허니문은 이미 사라졌다. 무엇보다 4월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새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 해도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한 현실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정부에 대해

몰입교육 등 설익은 정책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에 우호적이었던 세력들까지 정부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을까. 대선기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국민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진석 추경호 "장관 인선과정에서 가난한 사람과 서민들이 듣기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있어 염려된다"며 신중한 발언을 당부했다.

출발 초 지지율 최저 수준

'철밥통' '신이 내린 직장' 등 국민의 가까운 시선을 받은 공직사회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엇그제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를 머슴에 비유한 뒤 "머슴이 국민보다 더 편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임명재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통치자의 이념도 바뀌었고 그를 뒷받침하는 정당도 바뀌었다. 참여정부와는 그 성격이 판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노선을 기반으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 기조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이 기업인이어서 그런지 무언가 분명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가 대대해 보인다.

그러나 출범에 즈음하여 보여준 이 대통령의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 하겠다는 결과장과는 달

서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던 능력을 달린 환경(호남만이 반대한 정권)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고 기대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그래서 이젠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가 뭔가 해주길 기다리는 것은 이젠 버려야 한다. 광주의 경쟁력은 문화수도에 달려 있다.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해 국제 행사와 공연이 이곳 광주에서 매일 열리고,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그것을 가장 안락하고 멋지게 관람하기 위해 우리 지역을 찾도록 해야 한다.

문화는 돈이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광주의 차세대 경쟁력

리 지역 편중이 심하고, 임명된 후보자의 면면도 흠집이 있어 제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까 염려 된다.

왜냐하면 성과라는 것은 그것을 갖기 위한 과정이 매우 적절하고 꾸준했을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짙어진다.

필자는 이번 인사에서 호남이 소외되었다는 지역의 여론에 대해 그다지 동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 광주에 문화수도라는 테마를 던져주었고, 중앙부처와 공기업을 이천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한국전력이라는 거대기업을 키워주었으며, 지역의 많은 인사가 중앙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으면서도 우리는 불만이었기 때문이다.

호남이 만들었다고 자부했던 정권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박인중



겨울철에도 강은 얼지 않고 도심의 여름 기온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간다. 불철 불착적인 황사 또한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그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 역시 올 겨울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계절의 운치를 느껴보지 못한 채 어느새 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과 녹지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느 때보다 분주한 계절이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식수 시기가 빨라져 작기 식수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발주 등 갖가지 업무를 한겨울에 미리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오는 4월로 예정된 2013년 하계유니

한 전원으로 도로 가꿀 수 있다.

나무심기에 3월이 적기다. 5월에 심은 나무보다 4월에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높고, 4월보다는 3월에 심은 나무가 활착률이 더 높다.

U대회 실사 위원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4월에는 녹음이 시작되고 도심 곳곳에는 꽃이 만발할 시점이다. 시민 모두가 지금부터 한 그루 나무를 심는다면 실사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결과는 높은 점수로 이어질 것이다.

도시의 숲은 경쟁력의 바로미터다. 가로숲은 어떠한가. 공원은 어느 정도이고, 주택가에는 어떤 정원이 만들어

2013 U대회 유치 나무심기로 염원하자

비서이드대회 현지 실사에서 광주가 다른 신청 도시보다 경쟁력을 가진 녹색 도시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는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나 나무심기 출발선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숲과 나무가 가득한 광주를 공무원들 힘만으로 만들 수는 없다. 광주가 문화수도로서의 도약을 꿈꾼다면 무엇보다도 그에 걸맞게 도심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나무심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주변에 나무 심을 공간은 많다. 초·중등학교의 자투리땅에 학생들과 함께 숲을 만들 수도 있고 주택과 아파트 등에는 이웃 주민과 가족들끼리 작은 화단을 만들 수도 있다.

삼터 곳곳에 나무를 심으면 도시의 특성은 제거되고 숲과 꽃이 있는 운택

져 있는지 등은 도시환경의 지표가 된다.

큰 나무 한 그루는 네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 건강한 나무 한 그루는 공기 1㏍ 당 7천개의 먼지 입자를 감소시켜준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나무와 숲은 농촌이나 산촌보다 다섯배에서 열배 정도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주는 등 환경적 효과가 높다. 따라서 U대회 실사위원들이 후보지의 녹색 도시숲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시민들이 심는 나무 한 그루는 녹색환경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2013하게 U대회 유치 현지 실사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후손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1톤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음성정보 주고 받는 동호회, 건전한 친목회로 거듭나길

오프로드용 4륜 구동 지프를 구입한 뒤 차량 정보와 레포즈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는 차량동호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후 회원들과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던 중 한 회원이 "차량 변호관에 약간의 장차만 달린 과속을 하더라도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며 그것을 공동구매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회원들이 일제히 "좋은 생각"이라며 "공동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즉시 사자"고 찬성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불법 장비를 구입해서 달라고 이런 동호회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언짢아서 거절하고 돌아왔다.

그 뒤 필자는 다른 동호회로 옮겼다. 그런데 동호회를 옮기던 2주만에 이메일이 날라왔다. 기존에 장착된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의 전구보다 더 밝은 고전압방출(HID) 전구를 구입해서 달 예정이니 희망자는 동호회 구매담당자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이었다. 황당했다. 불법임이 앞편서도 단순히 취미생활을 하거나 다른 차량과 다르게 보이려고 이런 장치를 하더니..

자동차 동호회들이 건전한 오너드라이버들의 친목회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장치 구매나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건전한 친목 모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남준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시설

가격 담합하는 '얇체' 주유소 뿌리 뽑아야

고유가 행진 속에 기름값을 담합해 폭리를 취해온 주유협회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주유소에 인상 압력을 넣은 한국주유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전북지회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유소들이 국민 고통은 아랑곳없이 사리사욕을 채웠으니 할 말이 없다.

이들 지회는 지난해 2월 회의를 열어 휘발유 등의 가격 인상을 결의한 뒤 관할 주유소를 찾아 가격 인상을 지시하고 점점했다. 또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에는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담합행위가 이번만이 아니다. 광주·전남지회는 2004년, 전북지회는 2003년 각각 같은 혐의로 적발됐고 다른 지역 주유소협회들도 수차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정유업체에 이어 일선 판매망인 주유소까지 담합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전직 유명선수가 끔찍한 살인이라니..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에서 실종된 김모씨와 세 딸 등 일가족 4명이 사건 발생 21일 만에 결국 피살돼 압매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온 전직 유명 프로야구선수 이호성씨도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빛 독촉에 시달린 이씨가 김씨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전직 유명선수가 끔찍한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인명경이 풍조가 극에 다다랐음을 말해주는 것 같아 두렵기조차 하다. 용의자 이씨는 1990년대 광주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팀의 화려한 스타였다. 2001년 야구계를 은퇴한 이후에도 사업을 성공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민의 충격은 더욱 크다.

과거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가 사업 실패로 몰락한 사실이 범행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깊은 좌절감에서

담합의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일 수밖에 없다. 나주~목포, 순천~여수 석창사거리 구간, 완도~해남~강진~영암 구간의 상당수 주유소들은 주유협회의 지시에 따라 휘발유 판매가격을 30~84원, 경유값은 74~136원 올렸다. 주유소들이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물가 상승을 부추겨온 것이다.

서민들은 고달프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의 경우 1㏍ 당 82원꼴에 불과, 보탬이 되지 못한 채 정차 그 혜택을 주유소에 돌아가고 있다. 기름값을 올릴 때는 짹째 올리지만 내릴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적거리는 '얇체 사촌' 때문이다.

담합행위 등 불가사범은 엄단해야 한다. 행정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고 과징금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휘발유 등 각종 제품의 유통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비이성적인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씨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단순히 돈과 개인적인 문제로 무고한 4명의 인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흉악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앞으로 경찰은 이씨가 왜 아무런 죄 없는 딸들까지 살해했는지 범행 내용과 동기를 밝혀야 한다. 압매장하는 과정이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공범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씨가 공개수배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활보할 수 있었는지, 경찰의 수사에 허점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 이씨 주변의 의문의 실종·자살사건과의 연관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차체에 우리 사회의 윤리 타락과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인명 경시 풍토가 깨닫스럽다.

無等鼓

라면이 화제다. 라면값 인상이 빌미가 됐다. 농심은 지난달 '신라면' 값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자 라면 사재기 파동이 일어났고, 급기야 청와대 회의에서 라면이 회두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평소에 라면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들은 100원 올랐다는 것이 크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라면이 고물가시대의 대표선수처럼 된

그래서 대통령은 라면 값을 예로 들며 민생 행거기에 나섰다. 문제는 서민들의 생활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 장관'들이 서민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재단할 수 있었겠느냐는 데 있다. 부자 내각이 도마에 올랐을 때, 그들은 물에 빠진 부자로서의 생활습관을 가차없이 드러냈다. "똥을 사랑할 뿐이다", "얇 걸리지 않았다"는 진단에 오피스텔 한 채

부자내각과 라면



를 선물 받았다", 35만 원짜리 비눗감, 4천만 원짜리 불박이장이 있는 오피스텔, 1억~2억 원짜리 싸구려 골프회원권 등 평소 물에 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뱉어냈다. 괜한 말실수로 그랬을 리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 사막기 위한 긴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본 삼양식품 창업주는 라면(당시 가격은 10원)을 생각해냈다. 생소한 나머지 처음 얼마 동안은 상당히 고전해야 했다. 그러나 얼마까지 않아 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그것은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1인 연간 70개를 소비하고 있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정)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2-8005> <F A X 222-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7-9500> <F A X 222-0195>
경 처 부 2200-616 여론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처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사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F A X 02-773-9335>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